



임실 진구사지(任實 珍丘寺址),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34필지 11,055㎡... 7세기에 창건된 고구려계 사찰 의의

‘임실 진구사지(任實 珍丘寺址)’가 전라북도 기념물 제144호로 지정됐다.

지난 1992년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사지에 대한 발굴과정에서 ‘진구사(珍丘寺)’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기와가 출토되면서 학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지정을 통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용암리사지가 고구려계 보덕(普德) 화상의 제자 적멸(寂滅)과 의용(義融)에 의해서 7세기에 창건된 고구려계 사찰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다.

진구사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태종대 자복사(資福寺)로 지정된 이후 임진왜란 전후 소실된 바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9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신라시대 건물지, 고려시대 건물지, 조선시대 건물지가 차례로 확인되며, 각 시기별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진구사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실 진구사지가 있는 용암리 북창마을은 조선시대 임실현 북창(北倉)이 있었던 곳인데 사지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진구사의 영역을 유추해서 정하고 발굴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에는 곤란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2019~2020년 ‘임실 진구사지 석등주

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의 지표 조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187-1번지 주변 주차장을 포함하여 34필지 11,055㎡에 대하여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임실 진구사지’ 문화재 구역 내에 위치한 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 석등’은 높이 5.18m에 이르며, 1963년 ‘임실 용암리사지 석등’으로 명명됐다. 1978년 도 유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된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등이 모두 통일신라 말기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1920년 진구사지에 세운 중기사(中基寺)에 소장하고 있었던 철불 또한 통일신라 말기 작품으로 2020년 6월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됨에 따라 진구사지와 중기사를 연결하는 문화관광에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임실군은 임실 진구사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3년에 걸쳐 국도비 7억을 들여 임실 진구사지 석등 관리사를 한옥형으로 건립했다.

관리사에 한 칸에 진구사의 연혁, 발굴과정, 출토유물 등을 사진과 패널로 전시하여 관람



임실 진구사지

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실 진구사지와 약 1km 떨어진 신평면 가덕리에서 발견된 임실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은 삼진강 신평천 구간에 위치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큰 ‘S’ 라를 그리며 흐르고 있다.

이는 구석기시대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삼진강 신평천의 맑은 물을 따라 걸으며 임실 진구사지 일대에 피어난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063-640-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대혁 기자

| 독자투고 |

“입금요구는 모두 피싱사기”

코로나가 하루에 신규확진자가 1000명대로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장기화 조짐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감염 우려에 외부 모임도 모두 취소하고 국민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연말자택 격리를 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비대면을 활용한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싱사기는 ‘당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들이다’,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피싱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에 당하기 마련이다.

피싱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심을 통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피싱사기 수법사례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다. 소개팅 상대방(피싱사기범)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고 뒤이어 안전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다.

안전금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금 요구를 하고 환불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한다. 프로그램 처리 입금, 송금이름 오류 등 계속적인 입금을 요구하여 수백만원의 돈을 편취한다.

잘 이용하면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이지만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기에 디지털 범죄의 주 무대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금 요구는 모두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의심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 앞으로도 피싱사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연희

건전한수렵문화는안전수칙 준수로부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순환 수렵장이 강원도 5개 시군인 강릉, 홍천, 평창, 양양, 홍성 등으로 한정돼 지난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순환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렵지역에서의 총기사고는 사람을 유해 조수로 오인하여 총을 발사하거나, 사소한 총기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수렵인들에게 안전한 수렵 활동을 위해 수렵용 총기 보관 해제 및 이송 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첫째 포획 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 보관 관할 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 수렵장 총기 보관소로 이송해야 한다.

둘째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 이동은 불가능 하다. 셋째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넷째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다섯째 수렵은 일출 후와 일몰 전까지만 가능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정봉조

사설

의회권력의 남용을 우려하며

완주군의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완주군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 4억5,988만1,000원 가운데 1억6,500만 원을 삭감했다. 그 전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인건비 3억6,24만9,000원을 삭감하려다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다시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해당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건 상정해서 갑론을박 끝에 금액을 줄여 1억6,5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한다.

삭감한 세부 금액은 인건비 3억6,24만9,000원 가운데 1억5,0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3,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이다. 군의회는 해당 금액을 삭감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 법인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삭감한다.’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예결위에서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려다가 부결되자, 본회의에서 다시 4명의 의원이 예산에 심의를 요청하여 인건비 49%를 삭감한 것이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적절히 쓰이는지 감시하고 시정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 해당 단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돕는 단체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순수한 봉사를 유도하여 행정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분야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다. 자원봉사에 뜻이 있어도 일의 내용을 봉사자가 알지 못할 때 교육을 시행하고 봉사가 활성화하도

록 돕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다. 그러므로 행정에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가며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유도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자원봉사가 더는 필요없다 라는 뜻이거나 그마저도 무료로 일하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일부위원의 생각대로 보조금을 기준 없이 삭감한 일은 그야말로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더구나 비영리 단체이고 자원봉사자들을 가르치고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이들이 스스로 벌어서 인건비를 해결하라는 요지의 삭감 이유는 터무니없다. 비영리 법인에게 영리행위를 해서 자구책을 강권하는 의회가 있다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아 거슬린다 해서 아무 예산이나 삭감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을 고쳐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업무가 부실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일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만일,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타격을 주고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이번 완주군의회 의사결정은 큰 잘못을 범한 것이 된다. 그런 잘못이 아니기를 바란다.

N 뉴스속의 뉴스 N

푸스카스상

푸스카스상은 국제축구협회 2009년부터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으로,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 전세계 축구경기에서 나온 골 중 가장 멋진 골에 수여하는 상이다. 헝가리의 전설적인 공격수 페렌츠 푸스카스(1927~2006)의 이름을 딴 상으로, 푸스카스는 1950년대 ‘마법의 마자르 군단’이라고도 불린 헝가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활약했으며,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를 이끈 축구 스타이다.

푸스카스상은 전 세계 FIFA 회원국 감독·주장 등의 투표를 통해 그해 활약한 축구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인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의 시상 부문 중 하나로, 수상자는 팬투표 50%-전문가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한편 FIFA가 2020년 12월 18일 진행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 2020’에서 손흥민 선수를 푸스카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손흥민의 푸스카스상 수상은 한국인 최초,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다.

전주일보 The Jeonju Ilbo 2010년 10월 1일 등록 / 전북 가 00019(일간)

발행·편집인 신영배 편집국장 김주형

대표전화 (063)237-0095 구독 및 광고신청접수 (063)237-0095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만처리센터 (063)237-0096 팩스 237-0091

(우)560-0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8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이상현

전주일보 전자신문 www.jjilbo.com

기사제보·구독신청 237-0095

전북 미래를 바꾸는 큰 원동력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끌어올리는 비법

- 1. 꿈을 키워라.**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해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보면 어느새 긍정의 힘이 생겨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 2. 건강한 마음을 가져라.**
몸도 건강해야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긍정의 힘도 배가됩니다.
- 3. 생각하고 표현하라.**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사고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좋게 생각했다면 좋게 표현해야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 4.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긍정의 힘을 내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과거의 어떤 일입니다. 한번 과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더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의 나 자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 5. 실패를 거울삼아 강해져라.**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긍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부정하면 언제까지나 그것은 잘못이고 문제가 되지만 실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긍정의 힘이되어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 6. 기뻐하면 베풀어라.**
우리는 너무 물리적인 것에만 집착해 베풀려고 서들니다. 나누는 힘이 있는 것이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습니다. 꼭 돈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 긍정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 7. 행복은 나에게 있다.**
피랄새를 쫓아도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아무곳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긍정과 친해서 우리가 긍정을 가까이 하면 행복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나로부터 내 주위에서 그리고 작은것에서 찾기 시작하면 어느새 긍정의 힘을 이만큼 자라있을 것입니다.